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5.27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04.70원 (-12.50원)

KOSPI

8,047.51(+199.80, +2.55%)

KOSDAQ

1,172.52(+11.39, +0.98%)

국고채 10년 금리

4.073(-0.05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미래산업	Physical AI 이제 멈출 수 없다 [한유건/권태우/박찬솔/김다혜]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	모멘텀 발산기, 성과로 입증된 '과열주 눌림목' 전략 [이경수]
자산배분의 창(窓)	지금 미국 경제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이영주]
하나채권	[5월 금통위 프리뷰] 책임론 vs 신중론 [박준우]

기업분석

아이씨티케이	트럼프가 양자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홍식]
네오팜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다혜]

산업분석 Weekly

건설	예측은 어렵지만, 다가오는 전쟁 결과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프론트라인	VLCC Shortage에 전쟁까지 겹쳤다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OCI홀딩스, 풍산, 아이에스동서, 심텍, 디앤디파마텍, 케이엠더블유, 씨엠티엑스

하나증권

2026년 5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실전 퀀트(Quant MP)

모멘텀 발산기, 성과로 입증된 '과열주 눌림목' 전략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모멘텀 장세, 현재 성과가 높은 스타일에 주목하라

최근 주식시장은 이례적인 상승 변동성을 동반한 '모멘텀 발산 시기'에 진입해 있다. 이례적인 시장 급등으로 평가자산 역시 급증하자 베팅의 여력이 갈수록 충분해지는 구조인 것이다. 현 장세에서는 가치주나 낙폭과대주 중심의 역발상 전략보다는 성과가 검증된 고(High) 모멘텀 스타일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대형 업종(반도체 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개별 종목군 전반, 특히 '주가 과열 종목군'에서 가장 높은 아웃퍼폼 성과가 관찰된다. 이는 시장의 자금이 '똘똘한 소수의 주식', 즉 실적 기반 최상위 종목군으로 급격히 쏠리는 집중도 상위 시점임을 시사한다.

올해(YTD) 성과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최상위 스타일은 ① 목표주가 상향, ② 실적(이익 추정치) 상향, ③ 거래대금 증가, ④ 개인 1개월 순매수 상위 등이다. 결국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육각형 종목군'이 현시점의 가장 유효한 핵심 타겟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주가 과열 종목군의 성과도 높았지만 올해 성과 결과만을 가지고 이미 주가 과열이 진행된 종목을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단기 변동성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 및 트레이딩 조건을 다변화하기 위해 ⑤ '주가 눌림목 전략(3개월 주가 과열 팩터 + 1개월 단기 낙폭과대 팩터)'으로 대체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시장의 일시적 노이즈로 인해 단기 낙폭이 심화된 구간을 기회로 포착하는 전술이 데이터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테스트 상 3개월 주가 과열 종목군대비 눌림목 조건(+1개월 단기 낙폭과대)을 적용한 롱-숏 전략의 성과는 YTD 기준으로 단순 과열주 매수 전략 대비 +20.8%p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하방 경직성과 알파(α) 창출 능력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 참고로 목표주가 상향 + 실적 상향 + 주가 눌림목 전략(롱-숏)은 '10년 이후 연평균 +16.6%의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전략이다.

반도체 + 알파(α)에 집중

결국, 1차적으로 위의 실적 상향, 거래 증가, 개인 수급 모멘텀을 통해 유망 종목 풀(Pool)을 압축한 후, 이 중 주가가 3개월 정도 과열되었지만 '1개월 단기 낙폭과대'에 해당하는 주가 눌림목 종목을 최종 편입하는 것이 이번 6월 MP의 핵심 전략이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은 엘앤에프, HD건설기계, 대우건설, 에이피알,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등이다(해당 종목의 주가 추세 이탈 여부는 모니터링 필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 위 전략으로 국한지었을 때, 현재 전형적인 '주가 과열 종목군'에 해당한다. 펀더멘탈은 말할 것도 없이 견고하지만 지수 조정 등을 통한 단기 낙폭과대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월에 이어 시장 비중을 유지한다.

2026년 5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지금 미국 경제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표 불안 속에서도 시장은 강하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는 상반된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13%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고, 중소기업 파산과 소비심리 악화도 이어지고 있다. 체감 경기만 놓고 보면 이미 침체에 가까운 영역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 GDP는 2026년 1분기 연율 기준 2.0% 성장하며 전분기 대비 반등했고, S&P500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P500 시가총액은 GDP 대비 기준 역사적 고평가 영역에 근접해 있으며, AI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연체율과 파산, 소비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데도 왜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소비는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달라진 소비 구조가 있다. 현재 미국 상위 10% 가계는 미국 주식의 약 8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Wealth의 약 67.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된 구조다. 반면 하위 계층은 카드대출·자동차 대출·주거비 부담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소비에서 상위층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하위층 소비가 둔화되더라도, 금융자산 상승 효과를 기반으로 상위층 소비가 유지되면 전체 소비와 GDP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미국 경제는 모두가 동시에 좋아야 유지되는 구조보다, 자산 보유층 소비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소비보다 기업 투자다

미국 성장의 핵심은 이제 소비보다 AI 인프라 투자에 있다. 2026년 1분기 미국 비주거 고정투자는 전년 대비 약 5.7% 증가했고, GDP 성장 기여도는 약 1.38%p에 달했다. 특히 데이터센터·서버·네트워크 장비 중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투자는 전년 대비 73%, 2022년 말 이후로는 약 149% 증가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확대는 반도체·전력·산업재·네트워크 장비 산업까지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가 광범위한 소비와 주택시장 회복에 의해 움직였다면, 지금은 AI 중심 CAPEX가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시장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여기에 더해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느리게 부실을 인식하고 있다. 사모신용 시장에서는 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현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PIK 전환과 만기연장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는 일부 미들마켓 차주들이 PIK나 구조화된 이자 이연 방식을 활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높은 금리 부담 속에서 이러한 구조가 다시 늘고 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오피스 담보 CMBS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 1~2% 수준에서 26년 약 12%까지 상승했다. 일부 오피스 자산은 이미 몇 년에 걸쳐 거래가격 기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 전체가 한 번에 손실을 인식하며 정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은행권은 즉각적인 자산 매각보다 만기연장과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있으며, 차환 부담 역시 계속 누적되고 있다. 즉 상업용 부동산 부실은 아직 진행 중이며, 손실 인식 역시 긴 시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미들마켓 신용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는 PIK 전환과 만기연장으로 현금 부담이 이연되고 있지만, 높은 금리와 차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손실 인식이 장기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시장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손실과 부담이 긴 시간에 걸쳐 분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와 핵심 변수

결국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 소비 둔화 자체가 아니다. AI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는지,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신용 차환이 가능한지, 자산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다.

체감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자금은 여전히 미국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전체 경기”보다 “자산·투자·신용 플랫폼”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소비 둔화나 연체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역이 유동성과 자본을 계속 흡수하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26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5월 금통위 프리뷰] 책임론 vs 신중론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주요국 중앙은행은 2022년 트라우마로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책임론을 강하게 의식**
- **한은도 인상 시사. 그러나 점도표는 3.0% 1개, 2.75% 12개로 점진적 경로 제시할 것**
- **유가 및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신 총재의 과거 신중론 강조, '27 성장 전망 때문**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책임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책임론은 유가 충격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일시적이라고 방치했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임계 수준을 이탈할 경우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신중론의 관점에서 이란 사태 이후 유가 급등은 전형적인 공급 측 충격 사례로 과민 반응(과잉 긴축)하지 않는 것이 교과서적인 대응이다.

현재는 2022년 전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정책 당국자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ECB 위원들 사이에서 신뢰도(credibility)를 지키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즉, 신중론보다 책임론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한국은행도 비슷하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사했다. 5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점도표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경로도 높아질 것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만큼 신중론보다 책임론이 앞서는 상황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는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가 예상**된다 (올해 8월, 내년 2월 인상 전망).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고, 점도표도 점진적인 인상을 시사할 전망이다. **5월 점도표(총 21개)는 3.0% 1개, 2.75% 12개, 2.50% 8개**를 예상한다. 근거는 (1) 유가, (2) 기대 인플레이션, (3) 신현송 총재 성향, (3) 2027년 성장률 전망이다.

(1)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 연장과 함께 호르무즈 개방 합의를 논의 중이다.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상당하나, 금융시장은 유가가 다시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걱정은 덜어냈다. WTI 유가가 $80대로 안정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2)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은 제한적이다. 5월 소비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8%로 4월(2.9%) 대비 하락했고, 3년 후 기대는 3, 4월과 같은 2.6%로 안정적이었다. 유로존이 3월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로 2월(2.5%) 대비 급등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6년 05월 2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아이씨티케이 (456010)

트럼프가 양자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60,000원(상향)
현재주가(5.26)	3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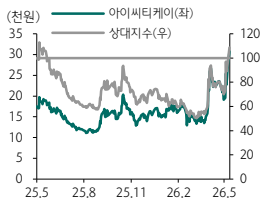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72.52
52주 최고/최저(원)	30,800/11,100
시가총액(십억원)	431.5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14,010.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5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9.5
외국인지분율(%)	4.64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6 인	27.1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2	40.4
영업이익(십억원)	5.8	19.5
순이익(십억원)	6.4	16.2
EPS(원)	458	1,156
BPS(원)	3,597	4,75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23.2	40.4
영업이익	(6.7)	(8.9)	5.8	19.5
세전이익	(5.8)	(6.7)	8.2	20.2
순이익	(5.8)	(6.7)	6.3	16.2
EPS	(467)	(499)	453	1,156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155.19
PER	(20.99)	(33.13)	58.61	22.97
PBR	3.02	5.23	7.39	5.59
EV/EBITDA	(18.32)	(27.99)	53.22	18.25
ROE	(22.20)	(15.36)	13.43	27.70
BPS	3,240	3,161	3,595	4,751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0,000원으로 상향. 양자산업 주도주에 투자하세요

ICT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트럼프 행정부가 20억달러 규모 양자산업 지원책을 발표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2) 빅테크향 보안칩 공급을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전반으로 고객사 확장이 가능해졌으며, 3) 라이선스를 수입중인 경쟁사들과 달리 자체 PUF를 사용중인만큼 향후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며 경쟁사 대비 이익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양자주 멀티플이 확장 중인 점을 반영하여 타겟 PBR을 상향조정하고 목표주가를 60,000원으로 상향한다.

미국 규제 당국이 지원하는 산업은 주가가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분참여를 조건으로 IBM, 디웨이브, 리게티를 비롯한 9개 양자업체에 총 2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제약,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양자의 중요성이 이미 거론되고 있고,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 역시 양자컴퓨터를 국책산업으로 선정한만큼 미국은 양자산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CHIPS(반도체), IRA(신재생), BEAD(유선 광통신) 등 미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급등한 바 있다. 특히 BEAD 프로그램이 미국내 광통신 투자를 촉발한 이후 미국 광통신주는 물론 국내 광통신 업체들마저 주가가 급등한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은 실제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며 미국 규제당국이 양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단 신호인만큼 양자주 급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력과 레퍼런스가 있는 ICTK가 양자산업 주도주로 차별화될 것입니다

양자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양자주들도 상승하고 있지만, 주도주와 후발주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양상이다. 아무래도 산업이 초기 국면이라 경쟁력 및 수익구조에서 비롯된 기업 가치가 시장에 명확히 인식되지 못 한 탓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ICTK가 양자업종 주도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ICTK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UF 기술을 자체 개발한 반면, 타 국내 양자업체들은 해외 경쟁사로부터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ICTK가 이번에 국내 업체 중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의 주요 단말에 양자보안칩을 공급하게 됐다. 글로벌 PUF시장을 선점 중인 대만의 eMemory나 시놉시스 산하 Intrinsic ID가 아닌 ICTK와 계약을 체결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수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계약을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빅테크 전반으로 고객사를 확장할 수 있고, 선두주자를 이겼단 점에서 ICTK가 본격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변곡점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ICTK와 타 국내업체간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타 국내 업체들은 좁은 국내시장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며 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ICTK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칩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수취하여 이익 규모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6년 05월 2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네오팜 (092730)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Not Rated

현재주가(05.26)	18,4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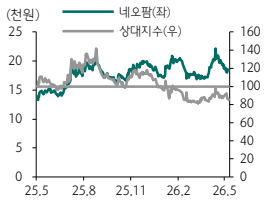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72.52
52주 최고/최저(원)	22,150/13,940
시가총액(십억원)	295.4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6,02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8.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
외국인지분율(%)	25.89
주요주주 지분율(%)	
잇츠한불 외 3 인	42.34
FIL LIMITED 외 5 인	8.3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0	167
영업이익(십억원)	32	36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1,710	1,940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5	97	119	132
영업이익	21	25	25	29
세전이익	23	29	30	32
순이익	17	23	23	28
EPS	1,062	1,448	1,439	1,736
증감율	(3.9)	36.3	(0.6)	20.6
PER	9.3	9.1	8.2	10.6
PBR	1.1	1.3	1.1	1.5
EV/EBITDA	1.9	3.8	2.3	4.8
ROE	12.0	14.5	13.0	14.2
BPS	9,040	10,151	11,203	12,356
DPS	700	750	600	75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꽉 잡고 글로벌 확장에 나서는 올해

영업이익률 20%대의 화장품 브랜드 네오팜이 올해는 제로이드와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네오팜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아토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마비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사로, 2025년 브랜드별 매출 비중은 아토팜 31%, 제로이드 29%, 리얼베리어 14%, 더마비 15%, 기타 10%로 이루어져 있다. 네오팜의 높은 마진은 병원용 민감성 스킨케어 브랜드 제로이드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 피부과 처방 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수익성 약화 우려에도 네오팜은 24년 3분기 제로이드를 H&B스토어에 입점시켰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여 H&B 매출이 온기로 반영되는 2025년 22%의 영업이익률을 사수하며 외형 확대를 이뤘다. 올해는 성장한 외형에 맞춰 마케팅 투자를 강화해 수익성을 유지한 채 제로이드 H&B 매출과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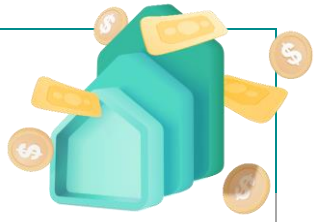
네오팜이 달라졌어요: 아이돌 모델 발탁, 글로벌 콘텐츠 강화

수익성을 중시해 광고비 지출에 보수적이던 네오팜의 브랜드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마케팅 효율을 중시해 국내 중심으로 인지도를 가진 모델을 기용해오던 네오팜이 1Q26 리얼베리어 모델로 글로벌 K팝 아이돌 세븐틴의 조슈아를 발탁해 2Q26 국내와 일본 매출 성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제로이드는 H&B스토어 입점에 이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자 3월 제로이드 틱톡샵 런칭을 비롯해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컨텐츠 시딩에 나섰으며, 전문 유통사를 통해 영국 부츠, 체코 로스만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 그 외에 2Q26 아토팜의 캐치티니핑 3차 기획 상품 판매, 하반기 더마비 대형 IP 콜라보 등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직 한 분기뿐이지만 4Q25 수출 비중이 22%까지 올라와 회사의 목표였던 20%를 터치한 배경에는 이런 회사의 변화가 있었다. K-뷰티 Top player만큼 빠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네오팜은 네오팜의 속도로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

2Q26 Preview: 마케팅 투자로 외형 20% 성장 기대

네오팜의 2분기 매출 385억원(YoY+20%), 영업이익 77억원(YoY+10%, 영업이익률 20%) 전망한다. 국내/해외/OEM 매출은 각각 302억원(YoY+23%), 70억원(YoY+20%), 13억원(YoY-20%) 예상하며, 브랜드별 성장률은 아토팜 +18%, 제로이드 +30%, 리얼베리어 +20%, 더마비 +1% 추정한다. H&B스토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제로이드 중심으로 아이돌 모델 효율 나타나는 리얼베리어, 콜라보 수혜 기대되는 아토팜과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본 메가와리 프로모션으로 커지는 수출까지 2분기도 왕성한 성장 기대된다. 현재 당사의 추정치 기준 네오팜의 12M Fwd PER은 9.9배에 불과하다.

예측은 어렵지만, 다가오는 전쟁 결과



건설 Weekly | 2026.5.27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6.5%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매수하고, GS건설와 대우건설 매도했다. 외인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수, 삼성E&A를 매도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건설섹터는 하락했다. 아이에스동서, 삼성물산, 삼성E&A가 상승한 반면, 원전주(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하락했다. 현대건설은 삼성역 철근 누락 이슈가 주가 하락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7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0.40%p). 수도권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8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49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64주 연속 상승(+0.17%), 전세가는 65주 연속 상승했다(+0.19%). 수도권에서의 매매가격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 매매가는 69주 연속 상승(+0.31%), 전세가는 66주 연속 상승(+0.29%)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2%), 기타지방은 역시 하락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2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8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4%,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12%), 인천(+0.01%), 부산 보합, 대전(-0.02%), 대구(-0.04%), 광주(-0.15%)가 하락했다.
-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있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지하 5층 구조물의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 자진신고 했다. 기둥 80곳에서 설계상 2개씩 배치되어야 할 주철근이 1개씩만 시공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철근이 누락된 기둥 외벽 전체를 두꺼운 강철판으로 감싸 용접하는 보강 공법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보강 공사비는 약 30억원으로 현대건설이 전액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강 방안은 학회를 통해 검증될 예정이며, 9월까지 약 4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개통 지연에 따른 보전금이 추가로 나타날 우려는 있다. 국토부는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의거, 삼성역 개통때까지 보전금을 지급한다. 월 평균 약 80억원을 지급한 이력을 보면, 4~5개월의 지연으로 320~400억원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이 미국 테라파워와 상업적 배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테라파워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 개발사로, 현재 와이오밍주에서 1기(실증) 공사 중에 있다. ARDP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나트리움 프로젝트에 약 20억달러를 DOE로부터 지원받는다. 와이오밍주에서 진행하는 캐머러 1호기는 미국 벡텔(Bechtel)이 EPC 수행 중으로, 2024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본공사를 진행 중이다. 목표 완공시점은 2030년이다.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 중이다. 주말사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가 언급되며, 종전 가능성을 높였다. 60일간 휴전 연장,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뢰 제거,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비축분 제거 협상,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협상 등이 언급됐다. 협의 완료까지는 여전히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가 적발, 미군의 방어적 타격 등의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재차 심화됐다.
- 종전 협상의 결과와 시기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해협은 봉쇄 중이다. 고유가 장기화 및 자재 가격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변동 우려가 있다. 개별 종목 이벤트로 대응하기를 제안하며, 삼성물산(반도체, 저PBR)과 아이에스동서(6월 경산 분양)를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종전에 따른 중동 재건(삼성E&A)과 이란 개발(DL이앤씨)은 종전결과가 나타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2026년 5월 27일 | Global Equity

프론트라인 (FRO.US)

VLCC Shortage에 전쟁까지 겹쳤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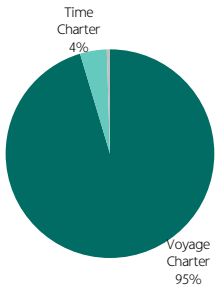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0.25 USD
CP(03.02)	37.12 USD

Key Data

국가	NORWAY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에너지
주요 영업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홈페이지	www.frontline.bm
시가총액(십억USD)	8.3
시가총액(조원)	12.4
52주최고/최저()	39.89/16.245
주요주주 지분율(%)	
HEMEN HOLDING LTD	35.55
FOLKETRYGDFONDET	4.82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4.3	54.7	102.4
상대	(0.0)	44.3	73.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050	1,965	2,207	1,543
영업이익	782	599	1,720	935
순이익	496	379	1,320	812
EPS(USD)	1.8	1.8	6.5	3.8
EPS(YOY, %)	(32.3)	(0.6)	265.0	(41.9)
ROE(%)	21.5	15.6	65.5	30.0
PER(배)	6.4	12.8	5.7	9.9
PBR(배)	1.3	1.9	2.9	2.9
배당률(%)	12.5	8.1	17.1	9.0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전쟁으로 유조선 운임 초호황기 진입

프론트라인의 1분기 매출액은 117% (YoY) 증가한 $9.3억, 영업이익은 528% 증가한 $5.9억(영업이익률 63.0%)을 기록했다. 1분기 VLCC 평균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2분기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2분기는 1분기 대비 VLCC 운임(Spot TCE)이 76%나 더 높은 상황이며, 현재까지 2분기 성약율은 VLCC 기준 82%이다. 현재 프론트라인은 VLCC 42척, 수에즈막스 19척, LR2 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선대가 스팟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조선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강도가 가장 강한 기업이다.

VLCC는 중동 인근에서 대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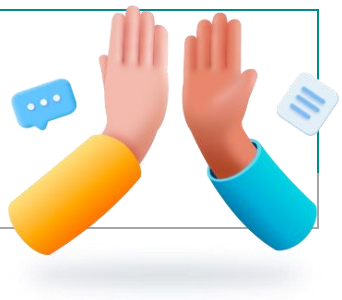
프론트라인은 실적발표를 통해서 전쟁 이후 VLCC들은 중동 인근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호르무즈를 통해 수송되던 원유가 푸라이자/얀부 항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미국 등 지역의 추가 수출로 인해 글로벌 원유 해상물동량의 순 감소량은 620만 배럴/일(기존 걸프만의 원유 수출량은 1,770만 배럴/일)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많은 선박이 중동 인근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원유 수송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론트라인의 수익성이 여타 선사를 아웃퍼폼하는 상황이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의 유조선 흡수 효과

호르무즈 해협 특성상 일간 140척 이상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된다면 VLCC 선대를 호르무즈 해협이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예정이고, 통항 정상화 이전까지 VLCC는 초고운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중동->미국으로의 에너지 소싱 다변화가 톤마일 증가를 야기하고 있고, VLCC 내 제재 대상 선박 비중이 17%까지 상승하고 노후선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VLCC 운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VLCC 스팟 시장 1위 플레이어인 프론트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P/B는 3배 수준으로 높으나, 2026년 ROE는 66%에 달할 전망이고, 12MF P/E는 7배 대에 불과하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5/26	1,941,000	2,052,000	5.72%	• 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생명 (032830.KS)	5/26	364,500	348,000	-4.53%	•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26,800	-2.39%	•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5/26	314,500	360,000	14.47%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풍산 (103140.KS)	5/26	88,000	87,900	-0.11%	• 1분기 부진했던 방산 매출은 수락시험 지연·중동 물류 차질 등 일회성 요인 •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현대화·에너지 전환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구리가격 상승 기대
아이에스동서 (010780.KS)	5/26	32,400	32,850	1.39%	• 대구 부동산 경기 반등과 주변 시세 상승을 고려할 때 경산 펜타힐즈W 분양 흥행 기대 • 과거 용호동W·수성범어W 사례처럼 개발이익 반영 국면에서 주가 상승 여력 높아
심텍 (222800.KQ)	5/26	131,800	132,800	0.76%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디앤디파마텍 (347850.KQ)	5/26	69,700	76,000	9.04%	• 5/27부터 진행하는 유럽간학회에서 MASH(대사이상지방간염) 데이터 공개 기대감 •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ORALINK 기반 GLP-1 비만 파이프라인 보유
케이엠더블유 (032500.KQ)	5/26	36,400	35,600	-2.20%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씨엠티엑스 (388210.KQ)	5/26	122,600	127,400	3.92%	•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Si Parts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 NAND 뿐만 아니라 TSMC를 통해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납품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61%	+0.06%p	+87.64%	+17.4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572,000	17.31%	•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26,800	-2.39%	•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팬오션 (028670.KS)	5/11	5,980	5,940	-0.67%	• 비벌크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선사로 리레이팅 기대 •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60,000	34.58%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052,000	99.81%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103,200	12.30%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99,000	78.8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12,600	22.66%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42,000	32.93%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068,000	263.88%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4.55%	-14.03%p	+57.96%	-12.2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6,975	58.9%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665	-9.9%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6,835	45.2%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340	41.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76.32	69.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4.64	11.7%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9.49	30.3%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95	20.5%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24	5.25	5.26	5.27	5.28	5.29	5.30
		▪미국 5월 CB 소비자기대 (E 92, 이전치 92.8)	▪일본 4월 PPI 서비스 (E 3.3%, 이전치 3.1%) ▪한국 4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	▪한국 기준 금리 (*E 2.5%, 이전치 2.5%)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 (E --, 이전치 -19) ▪미국 4월 PCE (E 3.8%, 이전치 3.5%) ▪미국 4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2%) ▪미국 1분기 GDP (E 2.0%, 이전치 2.0%)	▪일본 4월 실업률 (E 2.7%, 이전치 2.7%) ▪독일 5월 CPI P (E 2.9%, 이전치 2.9%)	
5.31	6.1	6.2	6.3	6.3	6.4	6.5
▪중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3) ▪중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4)	▪한국 5월 수입 (E --, 이전치 16.7%) ▪한국 5월 수출 (E --, 이전치 48.0%) ▪한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6) ▪일본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5.3)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4)	▪한국 5월 CPI (E --, 이전치 2.6)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9)	▪유로존 5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46.4)	▪유로존 4월 PPI (E --, 이전치 2.1%) ▪유로존 1분기 GDP (E --, 이전치 0.1%)	▪미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4.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